

중앙선 KTX-이음 '2021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1 KTX-이음 2 한국철도공사 전경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1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이 '2021년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서비스 부문에 선정됐다. KTX-이음은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상품에 주어지는 '소비자 인기상'까지 차지했다.

'올해의 녹색상품'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2008년부터 해마다 비영리시민단체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고 환경부 후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모두 5개 상품을 뽑았다.

특히 한국철도는 2012년 경부선 KTX가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 '올해의 녹색상품'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교통수단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철도는 2012년 경부선 KTX를 비롯해, 2013년 경춘선 ITX-청춘, 2014년 누리로, 2015년 O-트레인, 2016년 S-트레인, 2017년 ITX-새마을,

2018년 V-트레인, 2019년 호남선 KTX, 2020년 강릉선 KTX가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된 중앙선 KTX-이음은 ▲ 친환경성 ▲ 차별화된 상품성 ▲ 고객과의 소통 부문에서 소비자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을 출발해 제천, 영주를 거쳐 안동까지 운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친환경적이고, 고속철도가 다니지 않던 중부내륙지역과 수도권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항상 철도를 믿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녹색상품 10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저탄소·친환경열차를 지속해서 도입해 탄소 중립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